

11  
2017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  
우리의 웃음이자 희망입니다.



## 02

### 상권활성화로 인구 증가 '견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상가 공실률은 줄어든 반면 매출 성장력 등 경쟁력은 높아졌다. 제종길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03

### 5도6철, 교통이 좋은 도시 안산

신안산선 연장, KTX 초지역 정차에 이어 수도권 순환도로와 철도까지, 안산시가 교통이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강남·여의도까지 30분으로 통근이 가능해지며, 부산까지 2시간30분이면 도착해 만나질 생활권이 현실화된다.

## 08

###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여러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동90블록 학교용지 문제와 지난 8월부터 녀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동 해안주택조합 관련해 우리시 입장을 밝힙니다.

## 민선6기 제종길호(號) 통계로 보는 시정성과



관련 자료 2면 ~ 7면



관련 기사 6면

## 12·13

### 우리는 실버세대, 지금은 실버시대

제2의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다.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한다. 안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르신들의 활약상을 모아 소개한다.



# 인구 # 일자리  
# 상가 공실률  
# 상권 활성화 # 90블록



Ansan\_city



인구가 줄어 걱정이지요?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늘어난다고 하네요. 빈 상가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함께 기대해 봐요.^^\*



## 안산시, 상권 활성화로 인구 증가 '견인'

# 10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공실률 줄고 경쟁력 높였다



“  
제종길 시장  
상가가 잘 돼야  
인구도 늘고 도시가  
발전한다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심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줄어든 반면, 매출 성장력 등 경쟁력은 높아졌다.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중심 지역상권 11개 권역 시가 점포에 대해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 올해 공실률은 8.86%로 지난해 10.82%에 비해 약 1.9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과 비교할 경우 차이는 더욱 컸다. 3년 전 안산시 중심 상권 내 점포 총 2만3천573개 중 2천550개가 공실(10.82%)이었으나, 올해는 점포수가 2만3천836개로 263개 늘어난 반면 비어 있는 점포는 2,111개로 439개가 줄었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산패션타운으로 1.23%에 그쳤으며, 한대앞역(2.01%), 본오동 먹자골목(2.61%), 선부동 군자광장(3.02%), 대학동 상가(3.97%)가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하고 있는 상인대학은 현재까지 총 4기가 진행됐으며, 예술광장로, 선부광장로, 문화광장, 중앙동, 일동, 한대앞역, 초지동 등 7개 상권에서 374명의 소상공인들이 졸업했다. 단원구 초지동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7주 동안 총 40시간에 걸쳐 진행된 제4기 안산시 상인대학은 고객대응, 마케팅 기법 등 실효성이 높은 전문 교육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31일 64명의 지역 전문 경영인들을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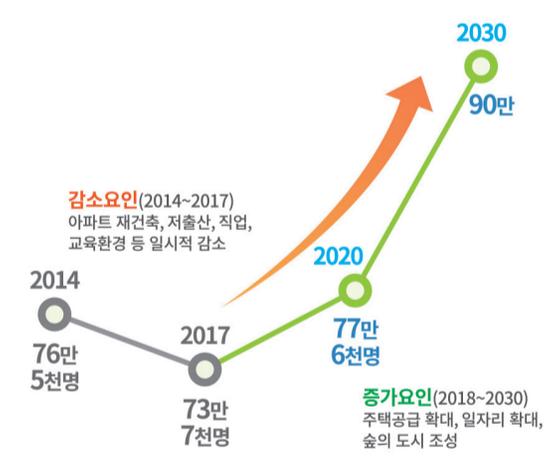
상인대학을 졸업한 한 상인은 “상품을 진열하는 것부터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기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배운 대로 잘 실천하면 매출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종길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이를 통해 인구 증가도 견인할 수 있다.”며 “결국, 상가가 잘 돼야 도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30년 인구 90만 명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삶과 일이 공존하고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29)

###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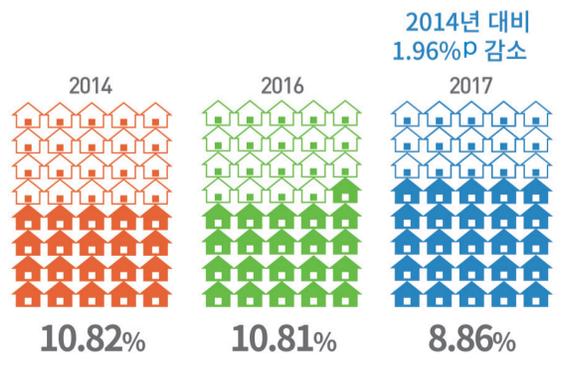
### 사동 90블록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지역경제 상생협약 체결 (2016.10.7.)
- 총 건설공사비 중 30% 지역업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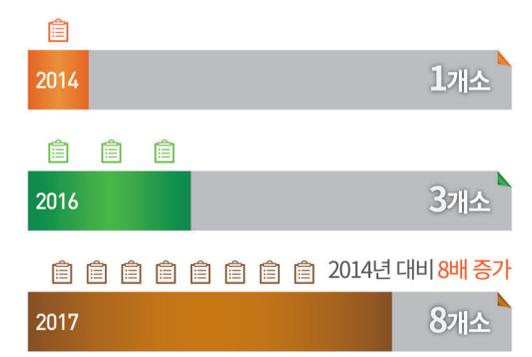
### 중심상권 상가 공실률

- 상인대학 운영,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 골목상권 등 상인회 등록

- 상점가·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온누리상품권, 정부지원사업 유치





Ansan\_city



5개의 고속도로와 6개의 철도노선을 갖추게 될 안산이 교통도시로 부상하고 있어요~^^ 서울까지 30분, 부산까지 2시간30분. 교통이 좋으면 산업도 잘 된다고들 하죠!



- # 교통환경 # 고속도로
- # 철도 # 신안산선
- # KTX정차 # 순환도로



## '5도(道) 6철(鐵)' 교통이 좋은 도시, 안산

# 신안산선 · KTX정차역에 수도권 순환도로까지... '그물망 촘촘'

### 강남 · 여의도 30분 '통근 원활', 부산 2시간30분 '반나절 생활권'

안산이 교통이 좋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도 계획돼 있다. 철도교통도 마찬가지다. 현재 운행 중인 4호선(안산선) 노선 외에 수인선과 소사·원시선이 내년 개통 예정이며 신안산선도 곧 착공한다. 특히, 인천발 KTX 정차역도 확정됐고 환상(環狀)형으로 추진되는 서울 외곽철도도 이어질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교통도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는 국도를 동서로 횡단하며 물자수송과 관광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울과 전남 목포시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해양관광단지, 충남 태안반도, 전북 변산반도, 전남 다도해 등 아름다운 관광지 와 연결된다.

경기도 성남~안양~안산~고양~의정부~구리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있으며, 2013년 개통된 평택-시흥고속도로도 안산을 지나간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는 안산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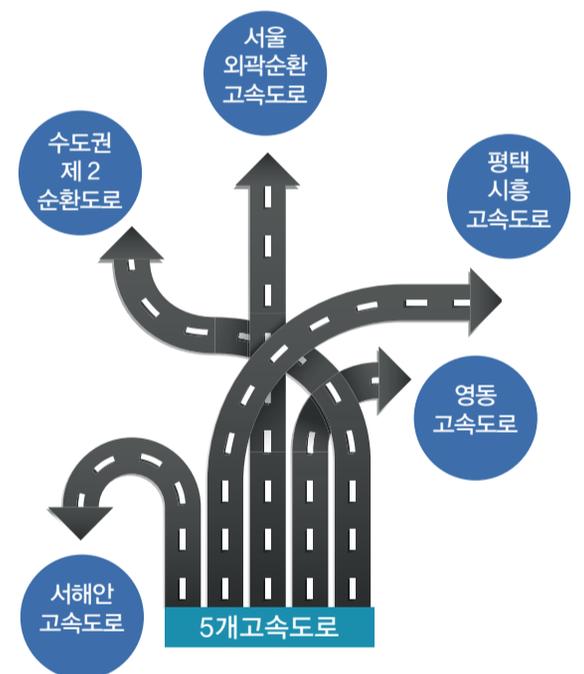
또한 서평택~매송(서해안선) 등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의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도 예정돼 있다.

철도 교통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안산을 중심으로 수원과 화성, 인천을 왕래할 수 있는 수인선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반지하화로 전철역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 시설, 주차장 등이 마련되며, 광명역~여의도~서울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곧 착공될 예정이다. 더구나 중앙역~한양대(사동90블록입구 사리사거리)까지 노선 연장도 확정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 기간철도 소사·원시선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며, 이후 소사역은 대곡-소사선과 연결되고 원시역은 서해선(장항선 홍성역과 송산역을 잇는 간선철도)과 연결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천발KTX의 초지역(안산시 단원구 소재) 정차가 반갑다. 이는 부산 2시간30분, 광주 1시간40분이라는 쾌속주행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앞의 철도 노선과 연계돼 전국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내·외곽을 순환하는 환상형 철도망 2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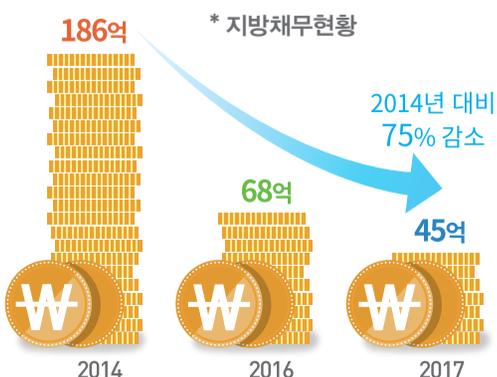


기존 철도망에 철로가 끊긴 구간들을 이어서 수도권에 큰 타원 모양의 철도망 2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안산의 경우 서울 강남까지의 통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안팎에서 30분으로, 절반가량이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라는 도시가 현재는 스마트 팩토리과 마이크로 팩토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인프라인 도로망과 철도망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며 "안산이 도로 및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6개의 철도 노선이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충청권은 물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안산이라는 도시의 제2도약을 이루는 르네상스 시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 철도팀(031-481-2958)  
안산시 건설과 도시시설팀(031-481-2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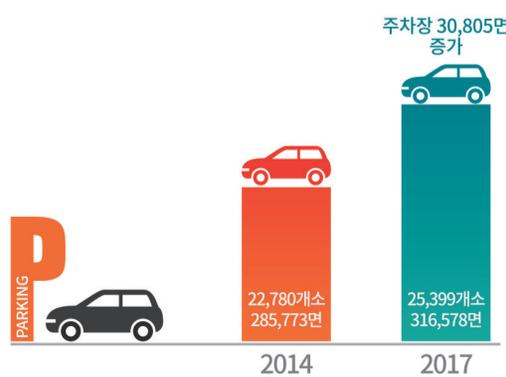
### 건전재정

○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불필요한 행사 축소, 건전재정 운영



### 주차장 확충

○ 노상·노외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학교 등 주차장 개방사업 등



# 주민자치 # 안전  
# 혁신교육 # 인재육성  
# 복지 # 청렴도



Ansan\_city



안산시 일동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대요. 사이동과 고잔동도 수상의 영예~^^ 안산시 청렴도는 좋아지고 CCTV도 늘어나고, 미래인재 육성까지! 좋아요! 최고!!



## 안산시, 주민자치 모범도시로 '우뚝'

# 일동, 300인 원탁회의 · 100인 합창단 성과... 전국박람회 '대상'

大賞

### 사이동 에너지 절약, 고잔동 세월호 치유와 회복... 각 '장려상' 수상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10월 26일부터 4일 동안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이하 박람회)는 전국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와 함께 진행됐다. 공모는 주민자치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전국 383개 읍·면·동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64개 마을을 선정했다. 안산시는 일동과 사이동이 주민자치 분야, 고잔동이 지역활성화 분야에 뽑히는 성과를 얻었다. 한 지방정부에서 3개 마을이 동시 선정된 것은 매우 뛰어난 성과다.

올해 처음 박람회에 출전한 상록구 일동은 민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통한 의제 도출,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마을 축제와 마을 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높이 평가돼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공동육아 영차어린이집,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동 100인 패밀리합창단 구성 등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가 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건 지난 2012년 호수동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이후 5년만이다.

'우리사이 좋은 사이'를 표방하고 있는 사이동은 과거 쓰레기매립장 있었고 현재는 8차선 해안도로로 나뉘어 여러 갈등이 있던 곳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을 공



10월 20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찾은 제종길 시장(가운데)이 일동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동체를 부활시켰다는 평가다. 낙후된 준공업단지 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감골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가 주목 받았고 특히, '소통의 다리'로 불리는 육교 정비사업과 도자기 문패 만들기, 쉬어가는 사이길 음악회, 마을신문 발행도 눈길을 끌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고잔동은 세월호라는 상처와 아픔의 치유를 넘어 송고한 희망으로 나아갔던 지난 3년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공감과 치유를 위한 주민 힐링 캠프, 회복과 나눔을 위한 문화마을 사진전, 지속과 희망을 위한 된장사업과 문화마을 신문 발행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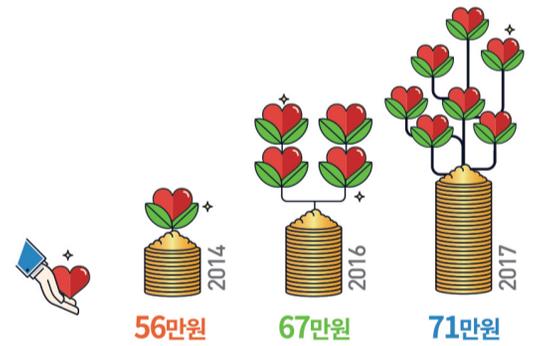
행사 첫날 박람회장을 찾은 제종길 시장은 "도시에도 마을이 있고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자치의 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직접 가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 떠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발전은 곧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격려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치행정과(031-481-3445)

### 시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 확보

- 동 복지허브화 확산 추진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 13개동 설치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개동 구성



### 미래인재육성 사업

#### 장학금

- 안산꿈키움장학생, 산업체근로자장학생, 아이디어장학생, 문화예술체육장학생, 학교밖청소년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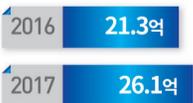
#### 장학금



#### 혁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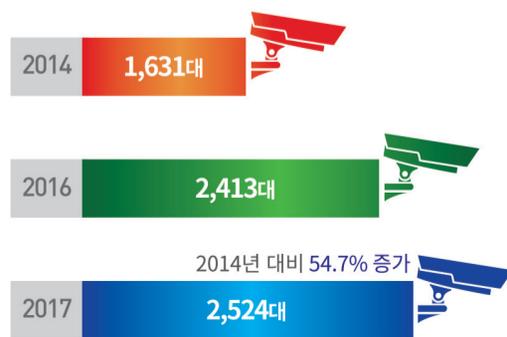
- 2016~2020 관내 초·중·고 109개교
-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학습공동체, 자율동아리 운영, 꿈의학교 운영 등

#### 혁신교육



### 방범 CCTV 확충

- 방범 취약·우범지역 CCTV 설치, 범죄예방 CCTV 설치



### 안산시 청렴도(국민 권익위 평가)





Ansan\_city



숲의 도시라는 비전을 선점한 안산. 1인당 도시 숲이 국내 최고 수준이에요. 숲에 가면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도 높아진다고 하니, 우리 모두 숲을 가깝시다!

# 도시 숲 # 미세먼지 # 폭염 # 신재생에너지 # 시민햇빛발전소



안산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생애주기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안산시 핵심 가치인 '숲의 도시, 안산' 실현을 위해 임신부·유아·청소년·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등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숲에 대해 배우고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임신부 대상으로 진행된 '아름다운 기다림'은 태명으로 아기와 인사를 나누며 솥돌과 자연물을 이용해 아기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고, 어르신들과는 '추억으로 떠나는 힐링 숲 마실'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25일, 노적봉공원 생태학습장에서는 중앙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숲을 체험했다. 강사는 나무판 뒷면에 비누칠을 한 뒤 입으로 불어서 생긴 거품을 보여주며 물관과 체관에 대해 설명했고, 학생들은

## 안산시, 생애주기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종길 시장, 청소년 대상 1일 강사로 나서 “숲에 가면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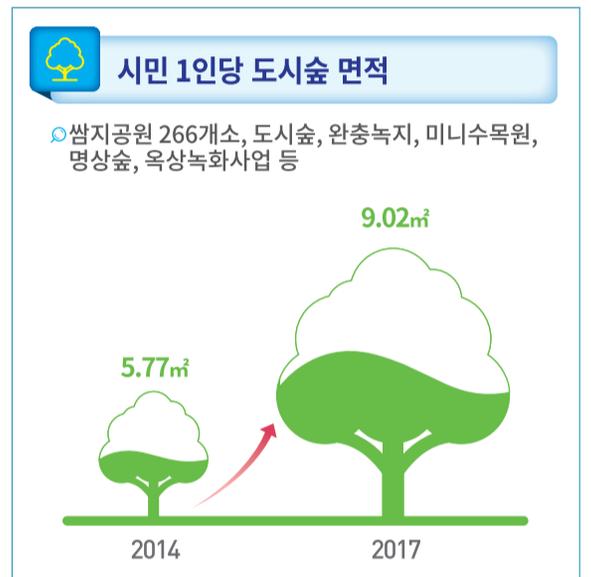
루페를 동원해 숨 쉬는 나무구멍을 관찰했다. 또한, 느티나무, 낙엽송, 소나무의 나이테를 관찰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로드맵'을 꾸미기도 했다. 동그란 나이테 위에는 PD, 아티스트, 과학자 등등 저마다의 꿈들이 산수유 열매와 애기똥풀 꽃잎으로 노랗고 빨갭게 피어났다.

손명주 학생은 “국립과학수사대에서 범죄과학수사를 하고 싶어 ‘뽀(Fun)뽀(Fun)한 과학’ 동아리에 들어 다양한 과학 원리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나무 무늬에 따라 펜의 경로가 바뀌어서 원하는 대로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의 진로에도 이런 어려움이 놓여 있겠지만 잘 헤쳐 나가야겠죠?”라며 웃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제종길 안산시장이 1일 강사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들 앞에 선 제 시장은 나뭇잎과 꽃잎으로 물들인 손수건을 보여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각에 대해 칭찬했다. 이어 숲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연을 찾아 ‘바람은 왜 생기는 걸까? 바람이 왜 낙엽을 흔드

는 걸까?’ 등등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407)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안산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 에너지자립, 시 이미지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안산시는 11월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안산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을 열고, 화력·원전 에너지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에너지 분권과 자립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 옮기는 에너지 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으며, 임일형 LS산전(주)전력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생산의 중앙집중형 국내 전력현황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마을이나 단지 단위의 소규모 전력생산 방식인 '지방 분산그리드' 추진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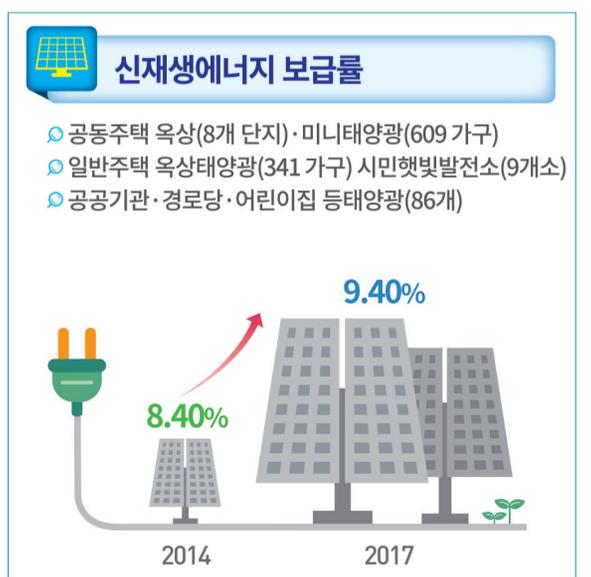
이어, 친환경 에너지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이창수 안산시 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2030년까지 안산의 10만 가구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승훈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 공학과 교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한전의 배전망을 잇는 계통연계비용 문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종길 안산시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은 김현삼 경기도의원, 김영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 지방분권 확대'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에너지 정책 구축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제종길 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안산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1가구 1발전소'에 함께 해주시면 안산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며 시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국제사회 에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안산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 30% 달성을 결의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92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대부도 # 보물섬  
# 시화호 뱃길  
# 해양관광 # 마리나항만



Ansan\_city



황금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보물섬 대부도, 이제 배에 자전거를 싣고 들어가 섬을 돌아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수도권 2천만 인구가 모두모두 대부도를 방문하는 그날까지!



## 끊어졌던 시화호 뱃길, 24년 만에 잇는다

# 안산시, 도심-산업단지-대부도 왕복하는 뱃길 조성 제종길 시장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시화호를 지나 천혜의 섬 대부도로”



1994년 2월 시화방조제 건설이 마무리되며 끊겼던 시화호 뱃길이 24년 만에 다시 이어진다.

시화호와 대부도를 포함하고 있는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심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거쳐 대부도를 왕복하는 뱃길을 새로 만들고 수심에 맞춘 선박을 도입한다. 특히, 자전거를 싣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관광코스로 개발하며, 시민들의 출·퇴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산시는 그동안 시화호 뱃길 복원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나 일부 구간의 수심이 낮아 선박 운항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여러 시도를 거듭한 결과 “흘수(물에 잠겨있는 선박의 깊이)가 낮은 배를 선택하고, 조수 대기 시간을 고려해 선박 운항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는 해법을 찾았다. 지난 9월 안산시는 시화호 뱃길 조성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운항을 실시했다. 현재 시화호에서 가동 중인 조력발전소와 연동, 물이 빠지고 들어갈 때 수심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선박 운항 시간을 조절했으며, 시화호 뱃길에 적당한 선박의 제원을 결정하는데도 참고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선착장에서 선박에 탑승, 시화 멀티테

크노밸리(MTV) 내 반달섬과 안산천 하구를 돌아 다시 조력발전소로 돌아오는 코스를 직접 체험한 제종길 시장은 “(시화호 뱃길 조성은)깨끗해진 시화호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라며 “대부도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의미와 함께 시화호에서 카누·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 내 안산천 하구에 선착장을 만들고 선박 1척을 구입하며, 내년에는 반달섬과 방아머리 선착장과 선박 2척을 마련한다. 배는 20~30인승 1척, 50~60인승이 2척이며,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한다.

향로는 현재 3가지 안을 구상 중이나 도심과 산업단지, 대부도를 잇는 코스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현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산업단지인 시화 MTV 내 반달섬을 경유한 후 대부도 방아머리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총 21Km에 달한다.

안산시는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을 통해 시화호와 대부도의 환경개선은 물론 수도권 2천만 명이 애용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는 이번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을 통해 121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152억 원 규모의 생산효과 그리고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운항 데이터를 토대로 설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 경기도 지



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국비 10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4)

## 스웨덴 기업 2천억 원 투자 '예상' - 대부도에 마리나항만 개발 -



안산시(시장 제종길)와 스웨덴의 마리나 전문 기업인 에스에프 마리나(SF Marina) 그룹은 10월 19일 2천억 원 규모의 투자약서(LOI)

를 체결하고, 대부도 방아머리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서 에스에프 그룹은 본사 회장이 서명한 투자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약서를 체결했다.

이 그룹은 그동안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에 대해 적극 투자를 밝혀왔던 업체로 그룹 내 마리나 전문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마리나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안산시가 최초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투자 규모는 2억 달러에 이르며 해상과 육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마리나 시설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을 포함한 마리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종길 시장은 “이번 투자약서 체결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세계 최고의 마리나항만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40)

## 시화호 주변 개발 계획

시화호 일주 자전거 도로 / 거북섬 마리나 / 송산그린시티  
반달섬 상업지구 / 대부도 보물섬 / 방아머리 마리나





Ansan\_city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를 선언했네요. 사동89블록에 국가산업연구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고요. 전통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 4차 산업혁명

# 강소기업 # 경제협력

# 마이스산업

### 기고문 제종길 안산시장

## 안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 1만개 제조업체... 스마트공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증기기관차, 전기, 컴퓨터로 대변되는 지난 250여 년의 산업혁명 역사를 한번에 뛰어넘을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제품과 설비와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이 그 주인공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인다. 핵심은 '스마트(Smart)'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것처럼, 공장이나 도시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공장이 스마트해지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져 효율은 극대화되고 불량률은 최소화된다. 도시가 스마트해질 경우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등의 문제를 스스로 예측·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변화의 속도와 폭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으로, 2030년 국내 경제적 효과가 최대 4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산 스마트허브(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 다가오는 향후 30년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를 선언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적극적 행보에는

지역 내 1만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체의 산업적 토대와 안산사이언스밸리(이하 ASV)라는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ASV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안산의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와 마이크로 팩토리를 중심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스마트 팩토리란 각 생산요소들의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 상호 경계 없이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정부 선정 '대표 스마트공장'인 동양피스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현장 자동화부터 공장 운영까지 일체화된 고도화 스마트공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사동90블록도 스마트하다.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R&D)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이웃한 89블록을 인공기능과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 팩토리도 대표적 사례다. 3D 프린터 등 첨단 제조 장비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공장으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역설계를 통해 도면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년 동안 44조의 기업투자를 밝힌

바 있다.

안산시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 유치와 마이크로 팩토리 도입,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지는 도시를 담당하게 만들어 갈 계획이다.

###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유치

- 마리아항개발, 세계정원경기가든, 해양안전체험관, 스마트팩토리, 마이크로팩토리, 산단재생혁신사업



### 공공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 계층별 청년인턴사업, 넥스트 청년 희망일자리사업
-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



### 강소기업 육성

- (주)다원시스 등 15개 기업 15개 R&D연구과제 지원
- ◎ 특허출원 8건, 인력양성 27명, 사업화 2건, 시제품제작 14건, 매출증가 8.9%



## 안산시 & 독일 아헨시, 경제협력 공동 플랜 가동

### 세미나 개최... 양국 기업 참여한 '매칭 상담회' 열려

제종길 시장 "서로 원하는 협력모델 만들자" 강조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9월 6일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독일 아헨특구 마르셀필립 아헨시장과 기업을 포함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독일 아헨시 대표단 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협력 세미나는 독일 아헨 투자청의 기업 투자 환경과 협력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독일 기업과 국내 관심기업과의 기업매칭 상담회를 통해 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세미나에는 자동차 내연엔진 등을 생산하는 FEV holding을 비롯해 6개 독일 기업이 방문해 국내 10개 기업과 한시간 가량 각 기업별로 상담회도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포함한 9개의 연구개발·지원기관이 입지해 있는 경기도 최대의 혁신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안산시와 독일 아헨



특구가 시청, 대학, 연구소, 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모든 가능한 교류와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고 말했다.

한편 제종길 시장은 지난 5월 독일 아헨시를 방문해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산시와 아헨시의 산업체 육성과 공동연구과제 진행, 강소기업 지원 등의 교류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2854)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동90블록 학교용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 학교용지를 누가 공급해야 하는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①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도 또는 교육청이 유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며 ②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시는 "학교용지를 포함한 90블록 전체 토지를 GS건설컨소시엄(이하 GS)에 매각했으며, 이후 GS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 해당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이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와 교육청은 법제처에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법제처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진행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안산시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의결하였습니다.

◆ 2020년 입주에 맞춰 개교가 가능한가.

-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가릴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2020년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교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안산시가 소송을 조건으로 하면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그 결정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동90블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법률적 판단을 잠시 미루더라도 2020년 개교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우리시가 GS에 팔았던 해당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를 받은 후, 교육청과 상호 협조하여 차질 없이 개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매각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매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가릴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2020년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교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안산시가 소송을 조건으로 하면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그 결정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동90블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법률적 판단을 잠시 미루더라도 2020년 개교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우리시가 GS에 팔았던 해당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를 받은 후, 교육청과 상호 협조하여 차질 없이 개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매각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매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가릴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2020년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교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안산시가 소송을 조건으로 하면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안산시가 GS건설컨소시엄에 매각한 사동90블록(전 챔프카 경기장)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단지 내 초등학교와 관련해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몇몇 언론사의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 중 핵심사항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택법, 상법, 학교용지 특례법 등 관련법을 볼 때 우리시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행정은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인가와 건립비용 절약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챔프카 경주장이었던 자리에 민선4기부터 추진하다 중지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업을, 민선6기에 들어와 그대로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민원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 또한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장된 신안산선'을 확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으며, 90블록 내 복합단지의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시와 GS가 맺은 상생협약을 통해 공사비의 30%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챔프카 경주장이었던 자리에 민선4기부터 추진하다 중지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업을, 민선6기에 들어와 그대로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민원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챔프카 경주장이었던 자리에 민선4기부터 추진하다 중지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업을, 민선6기에 들어와 그대로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민원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3055)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동공원 해안주택조합 민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 사동공원 부지에 대해 설명하면.

-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일원 888,758㎡ 규모의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건설부가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로, 현재 국·공유지 28%, 안산시 11%, 해안주택조합 7%, 사유지 55%로 소유자가 나뉘져 있습니다.

◆ 해안주택조합은 무엇이며, 그들의 요구사항은.

- 우선, 해안주택조합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합이 아닙니다. 지난 1989년 성원주택이라는 민간업체가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던 토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며



상록구 사동공원에 대해 지난 8월1일부터 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공원부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칭 해안주택조합의 요구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판단해 현재 어떠한 개발계획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시가 땅을 뺐었다는 주장에 대해.

- 해안주택조합이 "뺐겼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사동공원 전체 중 약 1만여 평에 해당하는 부지로, 1991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개발의 하나로 추진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취장으로 매입했던 땅이며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해안주택조합은 매각대금 11억여 원을 수령하였기에 이는 우리시와 무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땅을 뺐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우리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우선, 전체 부지 중 단 7%밖에 소유하지 않은 비인가 특정 단체가 나머지 93%의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발사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사동공원은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우리시는 장래여건이나 이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2417)

# 안산시, 2층 버스 추가 도입 강남역행 2대, 여의도행 1대... 시민 큰 호응



안산시가 광역버스의 입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층 버스를 3대 추가로 도입했다. 새로 추가된 2층 버스 중 2대는 10월 16일부터 3102번(강남역행)에, 나머지 한 대는 11월 13일부터 5609번(여의도환승센터행)에 투입됐다. 이로써 안산시는 6월 22일 처음 2대를 도입해 운행하던 2층 버스가 총 5대로 늘었다. 노선도 기존 3102번에 5609번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2개로 확대됐다. 시는 이번 2층 버스 추가 도입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을 오고가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행 좌석버스의 입석을 방지하기 위해 좌석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2층 버스는 만(MAN)사에서 제작한 라이온스 더블 데커(Lion's Double Decker) 차량으로 1층 13석, 2층 59석을

갖추고 있으며, 1회 최대 7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또한 최신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C 기준을 적용했으며, 출입문 끼임 제어장치와 중간 출입구의 경사판을 이용해 휠체어의 승·하차도 가능하다. 특히 승객 안전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비상제동장치(AEBS), 자세제어 및 전복 방지시스템(ESP), 긴급제동장치(EBS), 엔진룸 화재경보장치, 지붕탈출장치, 어라운드 뷰 모니터시스템, 후방카메라 등을 기본으로 적용해 안전을 대폭 강화 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2층 버스 차량을 올 12월에 1대, 내년 2대 더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중교통 안전성 확보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 안산시, 도시경쟁력 높인다

### 관련 지원 조례 제정 공포... 도시재생 본격 시동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7월 1일 도시재생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 11월 20일 공포했다. 시는 조례 공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안산스마트허브(구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로 조성된 계획도시인 안산은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도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인접 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로 도시의 자생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은 관 주도의 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까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 방식으로 추진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안산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사람중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 창조'라는 목표로, 주거지가 낙후되거나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문의 :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2734)



소식通

## 안산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 건강관리사 방문...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안산시 상록수·단원 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진행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 문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975~8) 단원보건소(481-2563, 2552)

## 안산시, 재활용품용 투명봉투 사용

- 협조 당부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 안 해" -

안산시는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반투명)봉투를 사용해 달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경우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투명(반투명)봉투를 사용해야 하나 내용물을 알아 볼 수 없는 검은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안산시는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반투명)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 등을 사용할 경우 수거를 안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시민들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당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출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2259)

## 안산시, 상수도 시설 동파예방 대책

- 상황단계별 민원처리기동반 편성 운영 -

안산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수도계량기, 급수관로 등 시설물의 동파방지를 위해 "2017~2018년도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교체를 위해 상황단계별 민원처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안산시 전역에 수도계량기함 점검을 시행해 동파 우려가 예상되는 수용가 6,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고지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 관리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계량기가 동파 되었을 때에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신고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수도시설과(031-481-2037)



안산용신학교, 다문화가정 역사·문화 탐방

## 베트남·중국 어린이들, 멘토와 함께 한국문화 체험

안산용신학교가 주관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후원한 '멘토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경기 역사·문화탐방'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됐다. 자녀 양육 경험에 있는 내국인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멘토가 되어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우리말에 능통한 베트남, 중국 학부모 대표와 한국 멘토가 함께 단원미술관, 최용신기념관, 별망성지, 안산문화원, 화성 행궁 등을 돌아보며 공부한 뒤 체험 학습서를 자국어로 번역, 교육 자료로 활용했다.

약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이번 포럼은 단원미술관에서 시작, 최용신기념관에서 막을 내렸으며, 10월 28일에는 대부

도 한옥마을에서 탐방 발표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자국어로 발표하면 엄마들이 한국어로 통역했으며,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고 율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해복 씨(중국, 31세) "단원미술관에서 그림을 눈으로만 볼 때와는 달리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니 잘 이해되는 것 같다. 화성 행궁에서는 정조의 효를 배웠고 안산문화원 향토사 박물관에서는 옛날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알게 돼 좋았다. 옛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한옥에서 머문 하룻밤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다."고 말했다. 아들 김품만 군은(6세) "화

성 행궁에서 보았던 무술이 가장 재밌었고요, 한옥에서 엄마랑 아빠랑 지내서 좋았습니다."라며 웃었다.

김준매 씨는(중국, 34세) "여섯 살 딸 채림이에게 대한민국 문화를 알려주게 돼서 기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주 만나니 서로 친해지게 되고 함께 해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다문화 초등학교 수는 17,758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부모 출신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24.2%로 1위 중국이 16.4%로 뒤를 이었다.

◇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 안산시, 아파트 대표회의와 노동인권 협약 추진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캠페인 모습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재철)가 안산시 전역 아파트 108개를 대상으로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초 근로기준법 위반이 많았고, 최저임금 미지급과 단기계약 반복 문제가 가장 높았다. 경비노동자 74.3%, 청소노동자 58.1%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연령은 경비노동자 68.7세, 청소노동자 64.4세였으며,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24시간 주야교대 근무를 하며, 청소노동자도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또한 경비·청소노동자 모두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비율이 각각 63.4%, 4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산시와 비정규직센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아파트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되지 않고 관리회사를 통해 위탁 관리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재철 센터장은 "우리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는 경비·청소노동자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에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함께 1개월, 3개월 등 초단기 계약 반복 근절을 통한 고용안정, 안정적인 휴게시간과 공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협약 시기는 2017년 12월 신청기간은 11월 24일까지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안산시, 비정규직 제로화 선도

#### 기간제 등 비정규직 225명 정규직 전환

안산시는 10월 31일 '2017년 안산시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225명 전원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 심의회 개최에 앞서 사전준비로 지난 7월 31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자에 대해 소속 기관별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전환 심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안산시는 이로써 상시·지속되는 업무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사업에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향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 등을 선정해 일정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업무특성 상 불가피하게 일시·간헐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고용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nterview

##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김승력 대표

"체류 자체가 불안정한 고려인들, 동포로 대해주세요"



서른 살, 러시아로 떠났던 김승력 대표는 연해주에서 처음으로 고려인 동포를 만났다. 생김새가 똑같은 동포에 마음이 끌려 쫓아다니던 시간이 어느덧 20년. 현재 안산에만 1만 5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이 중 7천여 명이 선부동 땃골에, 5천여 명이 한양대 근처 사동에 터를 잡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고려인에는 뭔가 다른 애정이 느껴진다.

### 구 소련의 고려인 그리고 현재는

1860년대 러시아가 청나라와 북경조약을 맺고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되면서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군량미가 필요했던 러시아는 함경도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한다.

조선 말기 폭정과 흉년이 겹치면서 많은 한인들이 떠났고, 이후 1910년 나라를 빼앗기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안중근, 신채호, 이상설 선생이 모두 연해주에 근거를 두고 활동했다. 이때부터 '원래 연해주는 발해, 고구려, 옥저가 있던 우리민족의 고토'라며 '고려인'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한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으로 5천km가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내던져진다. 20만 명이 출발했지만, 두 달 동안 물도 없던 화물차에서 2만 명이 죽는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버텨낸 후, 봄이 오자 다시 농사를 짓고, 몇 년 만에 한인 집단농장까지 만든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시 시련이 닥친다.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독립해 민족 정체성 회복 작업을 벌이면서, 공용 언어와 사회적 지위가 한 순간에 바뀐 한인들은 다시 떠돌이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일부는 다시 연해주로 돌아갔고,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현재 국내 고려인들이 5만여 명 정도인데, 계속 늘 것 같다. 문제는 비자 때문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는 거다. 처음에 3년 비자, 1년 10개월을 연장한 후 새로 받아야 한다. 기간이 오래 걸리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20~25세 청년들은 아예 비자가 안 나와, 성인이 되면 떠나야만 한다. 체류가 불안정하니 정착도 힘들다. 한국어를 못하니 고국에 돌아와서도 외국인과 똑같은 취급이다. 새벽 인력시장이나 파견업체 통해 최저시급 일용직으로 일한다.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소."라는 하소연이다.

### 고려인지원센터에 시민들의 관심



안산 땃골에 왔더니 고려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었다. 6평짜리 반지하에서 한글이라도 가르치려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공간도 조금씩 넓어졌다. 현재 땃골의 고려인지원센터다. 어느 날 보니 사동에도 5천 명이나 살고 있었다. 마침 사동에 사는 고려인 사업가 한분이 1년 치 임대료를 선납하며 센터 운영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사동에 분소를 열었다. 밤엔 한글을 가르치고, 낮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선생님들 임금 마련도 어렵다. 많은 관심 바란다. 고려인들은 매일 새벽에 나가며 일요일 딱 하루 쉬는 고된 삶을 살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 150년을 떠돌면서도 '까레이즈'라는 자긍심으로 살아왔는데,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러시아나 우즈벡 사람 취급 받을 때가 가장 서럽고 힘들다는 거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동포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다.

◇ 문의 :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031-493-7053)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gmail.com

## 사동 감골주민회 마을축제

### 나무로 똑딱 만든 작은 놀이터에서 놀다

목공놀이를 이용한 특별한 마을축제가 사동에서 열렸다. 안산문화원 잔디밭에 목재로 만든 커다란 구름사다리와 색색의 징검다리, 대나무 돛이 만들어졌다. 동네 아빠들과 청소년들이 상호지지구조를 활용해 만든 이 새로운 구조물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 수 없던, 조금은 위험한 놀이도 시도했다. 간격이 넓은 다빈치다리를 건너는 법을 익히고, 살짝 흔들리는 스카이프로젝트 위를 걷기 위해 균형 잡는 법도 익혔다. 거미줄처럼 얽힌 돛 안에 들어가 가만히 바깥세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구조물은 마을숯나무 꿈의학교 워크숍 '상호지지구조 인식주놀이'를 통해 완성됐다. 청소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원리를 배우며 직접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다.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나무를 나르고 드릴을 사용해 고정하며, 통나무 스톱브에 불을 피워 라면을 끓이기도 했다. 이날 다빈치다리를 함께 만들었던 윤성웅 씨는 "축제 때마다 청소년 봉사자와 얼굴을 익히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며 "아이들과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영임 감골주민회 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상품을 조립하는 정도지 직접 도구를 사용해



만드는 경험은 거의 없는데 이번 행사는 목공 수업의 개념을 확장해 아이들이 야외에서 몸을 크게 움직이며 큰 구조물을 만들어보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사다리놀이를 하던 높은 다빈치다리에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해먹도 설치됐다.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기구가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고, 수작업으로 탄생한 대형 해먹은 그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 여럿이 올라가 둥그렇게 앉아있기도 했고, 한 명씩 올라가 그네를 타기도 했다. 마지막, 다빈치다리는 3개로 분리돼 무대로 변신했고, 인근 학교 동아리들의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 문의 : 사동행정복지센터(031-481-5502)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gmail.com

제2의 청년기를 살다



우리는 실버세대, 지금은 실버시대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9988(99세까지 팔팔하게)’이라는 말도 유행이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뒷방 노인’으로만 사는 것은 거부한다.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다부진 의지도 밝힌다. 안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르신들의 활약상을 모았다.



안산문화원

안산문화원이 진행하는 어르신 즐김터 ‘안산천년역사아카데미’가 11월 9일 ‘우리 고장의 가락을 찾아서(와리풍물놀이와 둔배미놀이)’ 편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와리풍물놀이와 둔배미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사물(북, 장구, 팽과리, 징)을 다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지난 9월 7일 시작해 오는 11월 30일 마지막 수업이 진행된다.

‘어르신 즐김터’ 사업은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안산에서는 안산문화원, 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대학교 웰니스센터 4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 4개 기관의 성과 공유회를 열 예정이다.

‘안산천년역사아카데미’는 안산 역사인물 알기(최용신,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강세황, 김여물 등), 만들기(옛 책, 바람 따라 마음 따라 도자기 풍경, 가을 정취를 밝히는 등불 등), 안산문화답사(어촌민속박물관, 쌍계사, 사세충렬

‘안산천년역사아카데미’ 진행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위한 ‘어르신 즐김터’



문, 오정각, 고승정,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단원미술관, 청문당 등)로 이뤄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길(77세) 어르신은 “주위에 권유할 만하다. 현대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다.”며 “노인들의 우울증이 나 치매 예방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리포구가 1950년대 생겼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내가 사는 안산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 세세

히 알게 돼서 좋았고, 강의 내용과 현지답사가 연계돼 머리에 쏙쏙 잘 들어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어르신 즐김터 사업은 안산문화원의 역사즐김터 외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의 여가즐김터,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향기즐김터, 안산시평생학습관의 인생즐김터가 운영되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은빛동지’



지난 10월 31일, 상록구청 로비에서는 ‘제12회 황혼의 길손’ 디지털 사진전이 열렸다. ‘은빛동지’ 회원들이 1년 동안 사진공부를 하며 찍은 작품을 모아 여는 졸업전시다. 노을 진 바다와 대교 사이로 지는 해를 포착한 ‘황혼(한정수 作)’, 연

못에 비친 고택을 동그란 문고리에 담아낸 ‘내면의 세계(배주은 作)’……. 언젠가는 노인이 될 관람객들은 노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앞에서 잠시 겸허해지는 모습이다.

‘은빛동지’는 2001년 동네 노인들이 모여 서로 부족한 컴퓨터 공부를 도와주는 동아리로 시작해 2003년 비영리사회단체로 등록, 2011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현재 IT기반 노인평생교육원이며, 영상작품을 제작하는

정식 미디어업체로 활약하고 있다.

은빛동지는 노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영상 촬영과 편집, 최종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컴퓨터 기초작업부터 포토샵반, 홈페이지반, 사진반 등을 운영, 현재까지 3개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7천명에 달한다.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178명이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어르신들은 IT 경진대회, 노인영화제, 사진전 등에서 거듭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강사·시니어 감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은빛동지 라영수 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노인문제 해결책은 ‘생산성을 갖추는 것’이다. 노인세대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교육을 통해 TV 콘텐츠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사에 송출하거나 단체·기관 등에 홍보 영상을 제작해주고 수익을 얻으며, 이는 다시 노인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빛동지는 1년에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봉사도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기록 봉사자 역할도 한다. 사회적경제지원 부서가 수행하는 아카데미, 통일포럼, 민족사 특강, 본오실록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오늘’을 영상아카이브로 만들어가는 등 디지털시대 노인의 표상이 되고 있다.

◇ 문의 : 은빛동지(031-438-408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킨 아름다운 노년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 안산용신학교 '반딧불 축제'

### 늦깎이 학생들이 1년 동안 가꾼 학습의 결실

11월 10일 안산용신학교에서는 1년 동안 희망으로 가꿔온 학습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학생들이 손수 꾸리는 '반딧불 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반딧불 축제는 매년 11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재학 학습자와 졸업생, 문해 교원, 학습자 가족 등이 함께 자리를 만들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학교 주방은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로 아침 일찍부터 시끌벅적했다. 솜씨 좋은 학습자들이 탕수육, 파전, 오징어초무침, 떡국 등을 만들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학구열로 뜨겁던 교실 책상은 하얀 테이블보를 두른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12시경 떡국으로 점심을 먹고 2시부터 발표회가 열렸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아내인 임미정 여사도 학교를 방문해 축하했고, 여러 안산시의원들도 참석해 늦깎이 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사물놀이 팀의 축하공연 후 각 반별로 노래와 율동, 연극 등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을 응원하는 선생님들의 라인댄스 축하공연까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중학과정에서 공부하는 정상숙 씨(63세)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율동을 해보겠어요. 진짜 학생이 된 거 같아 즐겁습니다.”라고 말했고, 50대 중반 학습자는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언니들과 함께 노래하고 율동할 수 있어 무척 즐겁고 행복합니다. 언니들이 서로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용신학교는 매년 열리는 반딧불 축제 외 봄 소풍, 수학여행, 졸업여행과 각종 체험 학습을 통해 학창시절을 마음



껏 누리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안산용신학교는 1987년 안산중앙실업학교로 개교, 제도교육에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해오다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교육부 지정을 받았다.

◇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이선희 명예기자\_jiamyou70@hanmail.net

### “우리는 밝고 당당한 평생학습자!”

#### 2017 한글잔치 & 학습동아리 한마당



2017년 안산시 한글잔치 & 학습동아리 한마당이 11월 16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친구야! 안산청춘열차 타고 가을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와 학습자 중심의 행사로 추진됐다. 축하공연은 안산용신학교 사물놀이와 민요, 고려인 청소년댄스, 동산노인복지관 스포츠댄스 등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문해학습자 대상으로 사전에 열린 안산시 백일장 우수작품전시는 보는 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으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해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문해교육, 안산을 밝히다'라는 주제의 스토리텔링 특강과 한글 맞춤법 지킴이 주제로 열린 '문해 레크리에이션'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카네이션 전달식에서 학습자들은 “뒤늦게 글자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지요. 배워도 자주 잊어버리지만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쓰고 읽고 해야지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 관계자는 “안산시 10개 성인 문해교육기관에서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 관계자, 교사 및 학습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특히 학습자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외치며 더욱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805)  
이선희 명예기자\_jiamyou70@hanmail.net

### 대한노인회 안산상록구지회 '맛사랑 봉사당'

#### 100% 국산콩으로 두부 생산...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우리사회, 건강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100세 이상의 인구는 2017년 현재 17,468명으로 2,179명이었던 지난 200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길어진 노년만족 복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도움도 얻고 꾸준한 사회활동의 유지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년 전 상록구 노인지회의 문을 두드려 6개월을 기다리다 취업에 성공한 이상길(71세) 어르신을 만나 취업 과정을 들어봤다. 이상길 어르신은 현재 콩·두부 전문식당 '맛사랑 봉사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고 있다. '맛사랑 봉사당'은 매일 100% 국산콩으로 두부를 한정 생산하는 곳으로 모든 직원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 Q. 표정이 무척 밝으시네요. 일이 힘들진 않나요?

하루 4시간 일하니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아침이면 내가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과 식당에서 만날 동료들과의 일상을 떠올리면 행복하지요.

#### Q. 취업하게 된 과정을 들려주세요.

군 출신으로 전역 후 대리운전 사업도하고 활발히 살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상록구지회를 찾아가 구직신청 하고 6개월을 기다린 뒤에야 취업하게 됐지요. 식당에서 일한다니 아들, 딸들이 말렸어요. 힘든 것은 둘째 치고 남자한테는 맞지 않을 거라고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사수를 잘 만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Q. 일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건강이 좋아졌죠. 젊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노인지회에서 꾸준한 건강관리도 해주고 친절교육, 위생교육도 받아요. 제가 쉬는 날에는 저를 찾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니 감사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좋아요. 식당에서 매일 콩 음식을 먹어서인지, 전에 항암치료까지 받았었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깜짝 놀라요. 좋아졌다고.

####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면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 경비 정도인데 24시간 맞교대라 힘들어요. 할 일 없이 집에서만 지내면 우울하고 체력적으로 퇴보하고... 노인특화사업장이 많이 생겨야 하겠지요. 대한노인회 안산상록구지회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맛사랑 봉사당' 이외에도 은빛클린(찾아가는 친환경 손세차) 사업, 해피버스 등 특화사업과 관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대학, 실버약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문의 : 대한노인회 안산상록구지회(031-410-454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청년창업의 꿈

###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 시민과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다! '작은목소리'

### 사회참여 플랫폼 '이슈이슈' 운영



민보연 대표

**“알림이 ‘읽’으로, 언젠가 그 ‘읽’이 ‘함(Action)’이 되는 변화를 유도”**

뉴스를 보다 이슈에 관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단편적인 기사들만 나열되며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빠지기 일쑤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

대한민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작은 목소리’는 평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고민하던 사람들이 사회 이슈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300일’, ‘디지털성범죄 아웃’, ‘나는 반려동물을 사지 않겠습니다’ 등 신문, TV,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슈를 전담으로 모아 무료로 발송한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민보연 대표(31세)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법을 만들어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큐브에 입주했다.

민대표는 “저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 세대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 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동창업자 모집 공고를 내 제주, 서울, 안산의 젊은이 다섯

명으로 팀을 꾸렸어요. 임대료 등 지원도 고맙지만 청년들의 창업 공간에 입주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얻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고 했다.

‘작은 목소리’는 시민단체와 시민을 연결하는 관계망으로 사회참여 물품, 전단지 등이 담긴 월간 ‘이슈이슈’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2017년 2월 100부의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300부, 500부로 수요가 늘면서 5호부터는 격월간으로 4천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개인구독자 700명, 팟캐스트 공개녹화장, 지역 카페 등 55곳에 1,700부를 정기배포하고 있다. 광화문, 목포 등 이슈지역과 연대하면서 전국의 사회이슈 관련 현장에도 직접 들고 가 배포한다. 인터넷 플랫폼도 준비 중으로 앞으로는 매거진 ‘이슈이슈’로 계간 발행할 예정이다.

관련 시민단체 활동 정보와 서명운동, 굿즈(Goods, 물품들) 구매처 소개 등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학적 소비’다. 나의 소비 행동이 이웃과 사회,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에 ‘가치’를 추가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회사를 소개해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동물실험을 막는다는 것. 그렇게 알림이 ‘읽’으로, 언젠가 그 ‘읽’이 ‘함(Action)’이 되는 변화를 유도하며 시민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있다.

◇ 문의 : 작은 목소리([www.facebook.com/magazineissueissue](http://www.facebook.com/magazineissueissue))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엉뚱 발랄한 아이디어 쏟아져

### 제종길 시장 “안산이 청년들의 꿈의 터가 되도록 하겠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청년 할당 법제화’ ‘안산 공공기관 인턴 활성화’ ‘안산시 홈페이지에 청년 지원 사이트 개설’ ‘청년들의 문화예술 교류의 장 마련’ ‘시가 보증하는 청년 대출 지원’ 등등 안산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11월 4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서다.

안산의 청년단체와 고등학생, 대학생, 신규 임용 새내기 공무원까지 200여 청년들은 ‘청년 공감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취업·주거·문화예술 등과 관련해 다양

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단체 회원들은 시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참여해 행정서비스 경험도 쌓고 취업에도 도움 되는 인턴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주거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청년 할당 법제화가 제시됐으며, 취업이 힘들어 결혼이나 연애까지 포기한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이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부족한 자본금을 시가 보증하는 청년대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참석 고교생들은 안산시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아달라고 했다. 행사 관계자는 “엉뚱 발랄하지만 참신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청년정책토론회는 안산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시민과 공유한 후 정책실현 가능성, 관련법령, 예산 여건, 효율성 등을 검토해 향후 반영하게 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이 청년들의 꿈의 터가 되도록 청년 계획을 세워 나아갈 것”이라며 “문화예술과 4차 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내재된 잠재력을 키우고 비약적으로 도약할 시기에 와 있는 안산에서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정책기획과(031-481-390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제4회 안산시 한 책 독서대토론회

###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참가자 다양... 독서문화 형성

책읽기 좋은 계절, 도서관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11월 18일(토) 안산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안산의제2 도서관특별분과와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4회 안산시 한 책 독서 대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매년 1회, 올해로 4회를 맞는 토론회는 선정된 책을 미리 읽고 참여하는 형식이지만, 토론방식이 쉽고 재미있어 책을 읽지 않았어도 참여할 수 있다.



©김진국

올해 선정도서는 김근우 작가의 '고양이를 잡아먹은 오리'로, 자신이 가족이라 여기며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를 오리가 잡아먹었다고 주장하는 괴팍한 노인과 전 재산이 5천 원도 안 되는 빈털터리 삼류작가, 가족보다 돈이 더 좋은 맹랑한 꼬마 등 이름 없는 등장인물들이 만나 부딪치며 펼쳐는 블랙코미디다. 토론회는 음악공연과 낭독, 자유토론으로 구성,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소년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가했다. 한 어르신 참가자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 구분 없이 토론할 수 있

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했으며, 청소년 참가자 김가온(단원중3) 학생은 "사실 자발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엄마가 토론회에 참가하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좋았고, 내용도 재미있어서 오길 잘 한 것 같다."며 웃었다. 안산의제2 도서관특별분과 윤명숙 위원장은 "우리 분과의 제3차 의제는 책읽기 좋은 도시 만들기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한 책을 읽고 한 자

리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산독서동아리네트워크 관계자는 "흩어져 활동하던 독서동아리들이 안산의 독서 열기를 펼치는데 힘을 모아보자는 마음으로 올해 네트워크를 결성했다."며 "현재 40여개 정도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 셋별작은도서관(031-492-2707)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안산시 평생학습포럼

### '통(通) 큰 시민교육 퉂아보기' 진행



11월 3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2017 안산시 평생학습포럼-통(通) 큰 시민교육 퉂아보기'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학생의 날'을 맞아 올바른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는 20주의 촛불행진으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시민들을 묶어준 광장을 예로 들며 존재를 회복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공적행복감'과 '공론장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이야기했고, 위정희 사단법인시민교육 위원장은 "21세기는 시민사회의 시대"라 정의하며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시대를 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과제 중 지역기반 공동체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김창엽 한국평생교육실천전략연구소장은 "시민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운동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 발전시키는 존재다. 시민교육은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품성, 인간화를 위한 사회구조 및 운영원리를 간파하고 실천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공부와 시민성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삶, 생활, 인생에서 길어 올린 내용과 소재로 구성되되 전 생애 동안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여한 전송학 씨(54세)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평생학습이 배움을 넘어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45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대부중학교에서 경험하는 자유학년제①

### 보물섬에서 직접 가꾸고 요리하는 텃밭생태교육



대부중학교(교장 이재영)는 전체 학생 103명의 아담하고 조용한 학교다. 해솔길을 포함한 둘레길과 많은 관광자원으로 유명한 대부도에 위치한 대부중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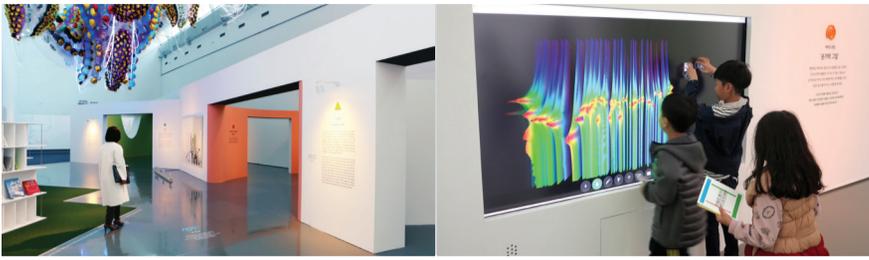
대부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물섬'에서 누리는 자유학년제 수업 중 학교 텃밭 생태교육은 지난 5월 모종 심기부터 시작됐다. 이후 흙에 대한 이해, 곡물의 중요성, 거름을 만들어 쓰는 이유 등 실내 이론수업과 함께 상자텃밭용 경량토 만들기, 거름통 만들기, 가을 파종 등 실습도 병행했다.

11월 2일 목요일에는 그동안 직접 기른 작물을 수확해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추전, 고구마 삶기, 깍두기 담기 등등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였다. 채소를 다듬어 썰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 등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업체용 학생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생겼고, 영어도 재밌게 느껴져요. 아주 어렸을 적에 밭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학교 텃밭에서 다시 체험하니 재밌어요. 그동안 기른 채소로 부침개를 부친다고 생각하니 즐겁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학생은 "할머니 댁에서 텃밭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허브 피자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텃밭의 중요함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만들 요리 맛이 기대됩니다."라며 즐거운 표정이다. 또한 생태교육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 "평소 텃밭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으나 수업을 듣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번 수업을 통해 채소를 더 잘 먹게 됐다. 작물 수확과 요리하기가 가장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 문의 : 대부중학교(032-886-4272)  
이선희 명예기자\_jiamyou70@hanmail.net

## 경기도미술관, '선·형·태'에 주목하다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전시 '미술은 폼이다'



현대미술의 선·형·태를 다채로운 표현으로 감상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 상설전시 '미술은 폼이다'가 내년 8월 19일까지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다.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2015년 '칼라', 지난해 '공간'에 이어 올해는 '폼(Form)'을 주제로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선 하나에서 시작된 형태가 작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돼 작품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미술작품들이 VR(가상현실)체험, 터치스크린 등 미디어와 결합해 더 특별한 시너지를 제공한다.

한국 추상화의 대가인 유영국 작가의 '산'은 자연의 '선·형·태'를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이 작품과 연계돼 세계의 숲을 감상할 수 있는 VR(가상현실)체험이 이뤄진다. 오재우 작가는 생산현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흐르는 강과 흘러

간 내 모습과 당신의 메아리'라는 영상작품을 공개,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기계가 되어가는 과정을 무용가들의 무심한 동작과 리듬 속에 담았다. 이 작품은 '어린이 요가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된다. 기술과 예술을 다루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가 문준용은 사람의 골격을 인식하는 센서 기술을 작품과 접목한 '비행'시리즈를 발표했다. 체험자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 다양한 선들이 그려지는 이 작품은 5명이 동시에 인터랙티브 경험을 하며 다채로운 형태를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닐을 활용해 미술관 천장에 기괴한 형태로 움직이는 작품을 설치한 이병찬 작가는 블랙홀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고, 고금산 작가는 진주를 배열해 글자가 시각적인 형태로 치환되는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포착했다. 다양한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미술교사와 그림책을 읽고 교감하는 '모두의 선·형·태', 어린이 모양요가 '엄마랑 아가랑', VR체험을 활용한 '화가의 산, 가상의 숲, 나의 자연'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 상호 작용하는 매체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7, <http://gmoma.ggcf.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애장품으로 꾸민,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단원미술관, 별의 별 전시회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안산 별의 별 전시회'가 열렸다. 독특한 이름의 이 전시회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애장해 온 다양한 수집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산환경미술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안산시가 후원한

이 전시회는 올해로 두 번째다.

전시작 선정은 공모로 진행됐다. 박묘자 씨의 티포트(차주전자), 백미애 씨의 향수, 퀸즈의 하프돌과 프랑스자수, 이희선 씨의 앨리스(Alice)와 관련된 일러스트나 소품, 임미정 씨의 머그컵, 한은봉 씨의 우표, 홍은앙 씨의 종(Bell) 이다. 또한, 수집품에 빠지게 된 계기, 수집품의 매력, 관련된 추억, 수집품을 담은 인생이야기들이 전시장 벽면에 걸렸다. 관심 갖는 방문객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들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특별한 인연으로 묶어준다.

안산환경미술협회 김용남 회장은 "모든 물품마다 사연이 있다. 애장품을 넘어 분신이다.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아온 수집품들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표를 사랑하다' 한은봉 작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았다. 외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를 통해 우표 선물 받았던 순간, 월급을 쪼개 우표를 샀던 소중한 기억이 떠오른다. 함께 한 세월이 50년이다. 우표를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었다.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했다.

하프돌과 프랑스자수를 전시한 작가 서장원(DIDIER)과 퀸즈(QUEENS)는 "취미로 시작한 것이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작품이 되다니 정말 기쁘다. 반은 인형이고 반은 램프인 하프돌을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빠졌다. 작품을 만들 때 가슴이 설레고 삶 자체가 행복하다. 전시를 통해 행복이 공유될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전했다.

◇문의 : 안산시 단원미술관(031-481-0504)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안산문화재단, 단원심포지엄 개최 김홍도의 재해석... 융·복합의 새로운 콘텐츠 제시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김홍도를 중심으로 한 안산의 문화예술 기반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2017 단원심포지엄'이 10월 30일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원 김홍도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를 통해 차별화된 단원 콘텐츠를 발굴하고 단원 스토리 공모에 선정된 대학생들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등 단원 콘텐츠가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정조와 김홍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 한시대의 예술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후원도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호모 루덴스\*로서의 예술적 유희를 통해 창의적이고 내재적인 감수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홍도의 그림을 이미지와 현대 무용으로 결합한 '단원 화무도'는 무척 설렘었다. 이번 스토리 공모 내용을 기반으로 이후 더 발전적인 융·복합 콘텐츠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단원의 그림 선택, 작가 활동에 의한 드라마 생산, 음악 창작, 안무 창작 등 일련의 과정을 담은 '단원 화무도'와 행려풍속도, 행려일기 등을 통해 김홍도의 사랑 이야기를 구성해 낸 '단원 스토리 공모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호모루덴스 : 유희하는 인간(네덜란드의 역사가·철학자인 '요한 호이지하'는 1938년 출간한 '호모루덴스'에서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함)

◇문의 : 안산시 단원미술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문화재단,  
'예술열차 안산선'

### 관객의 일상에 찾아들며 예술로 소통하다

10월 25일,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열차 안산선'이 올해 마지막 정차역인 상록수역을 찾았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예술열차 안산선'은 지난 3월부터 한대앞역을 시작으로 중앙역, 고잔역, 안산역, 반월역을 거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극단 '걸판'과 어린이음악극단 '별꿀'은 뮤지컬 앤(Anne)을 어린이 버전으로 각색해 갈라쇼를 펼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연희집단 '더광대'는 풍물, 탈춤, 사자춤, 남사당 놀이의 주요한 전통연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퍼포먼스인 '도는놈 뛰는놈 나는놈'으로 관객의 흥을 돋웠다. 무대 주변으로 둥글게 모인 관객들이 펼쳐준 마당에서 사자가 낙타와 뱀으로 변신했고, 태평소, 장구, 팽과리의 흥겨운 가락과 상쇠의 유쾌한 재담은 시민들의 추임새를 이끌었다. '로우패밀리'는 '가·무·악이 함께하는 춤추는 대한민국'으로 비보잉과 한국무용의 만남을 보여줬다. 3

인의 무용수 '리브레호벤'은 관계에서 생겨나는 충돌, 대립, 밀착 등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전했으며, 피아노팝 감성듀오 '멜로망스'는 촉촉한 음악으로 가을의 쓸쓸한 감성을 달래고자 했다. '멜로망스'를 보기 위해 상록수역을 찾은 강문희 씨는 "안양에서 대학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 타고 왔어요. 역 앞에서 이런 공연이 열린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네요."라고 했다.

공연장 주변에는 거리 예술 단체 '예술장돌뱅이'의 체험 프로그램과 수제인형, 설탕공예, 매듭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아트마켓도 열렸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예술과 삶을 매개로 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며 색다른 예술적 경험의 장을 열어준다. 예술이 일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술과 관객이 새롭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대부도 종이조형미술관 속 한옥체험관

### 인증된 우수 숙박시설...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어요"



안산시 대부도(단원구 대남로 233, 대부남동)에 가면 전통 한옥의 멋을 알리기 위한 한옥체험관이 있다. 강원도 소나무와 1,200도의 고온에서 구운 황토기를 사용하여 전통기법인 결구법(나무를 끼움)으로 건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한 우수 숙박시설이다.

한옥체험관은 교월당, 일연재 두 채로 나뉘며, 각각 대청마루와 주방이 있고 각 방에는 화장실과 세면실도 마련됐다. 또한, 전통놀이 체험장, 종이미술관, 공예 체험장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종이미술관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물, 곤충, 로봇, 바다 속 이야기 등 닥종이 인형작품이 전

시된 어린이 미술관이 따로 마련돼 있다.

수원에서 온 박종은(44세) 씨는 "대부도 해솔길을 둘러보고 종이미술관에 들렀다가 전통놀이를 체험해 봤어요. 운치 있는 한옥이 있는 것도, 숙박이 가능한 것도 몰랐네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다도 보고 전통 가옥도 둘러볼 수 있어 참 좋네요."라며 중학교 2학년인 딸과 함께 팔방놀이를 즐겼다.

종이조형미술관의 최재혁 대표이사는 "대부도 한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지은 한옥이라고 자부합니다. 삼중창으로 겨울에도 춥지 않아요. 한옥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게 한옥을 찾는 매력이지요."라며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한옥의 교육적 가치를, 어른들에게는 한옥의 멋스러움과 색다른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관을 찾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문의 : 한옥체험관(032-887-0606)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삶①

## "배려하면 함께 즐거워요"



### 페티켓과 위기 대처요령

우리나라는 다섯 집 중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른다. 전체 가구의 21.8%,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삶으로 들어온 반려동물들이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반려견 국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동물행동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한다. 두 번에 걸쳐 연재하며, 다음호에는 반려견의 위협에 대처하는 견주와 행인의 행동에 대해 소개한다.

사동에 사는 김민식 씨는(59세)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약 10년 전 직접 키우던 개에게 물린 후부터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넘겨준 개를 옥상에서 키우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었더니 느닷없이 공격했다. 정말 죽는 게 싫었다. 급히 파상풍주사를 맞고 회복됐지만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 후로는 개를 키우지 않으며, 지나가는 개도 불편하다. "손주들과 놀이터에 나갔을 때, 입마개나 목줄 없는 개들이 지나가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애견행동전문가인 노일호 안산해결사 방문애견훈련소장은 주인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안산은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돼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만 작은 개라도 '물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로,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우스와 리드 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선처리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혼자 있을 때 위협을 당하면, 시선을 피하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또, 발로 차려 하면 바로 공격한다. 눈을 마주했다면 절대 피하지 말아야 하며, 개를 향해 손바닥을 펼치고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옳지, 옳지!'하며 동시에 숨을 곳을 찾아 뒷걸음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가게나 창고 등으로 천천히 물러나 재빨리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해결사방문애견훈련소(031-296-503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한양대 미술치료 재능기부 동아리 '마음 씨앗'

# “이타심의 씨앗을 마음 속 빈 공간에 심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원 미술치료 석사과정 학생들이 '마음 씨앗'이라는 미술치료 재능기부 동아리를 꾸려오고 있다.

'전공 지식과 이타심의 씨앗을 마음 속 빈 공간에 심는다'는 슬로건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년 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11월 3일 한양대 디자인연구관을 찾아 '마음 씨앗'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각각의 목소리를 지면에 옮긴다.



**허명옥 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다문화, 한 부모, 조손 가정 청소년들을 주기적으로 만난다. 상담 초기 보였던 낮은 자존감, 우울이나 공격성향들이 점차 흐려지고, 서로 칭찬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보일 때 나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



**김효진 씨** “암센터 병원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괴로움만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밝은 색상을 사용하며 '미래의 꿈, 퇴원 후 소망'들을 소개한다. '마음의 소통의 장'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소통하고 소망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김진국



**이미식 씨**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그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힘든 시간을 거치고 '이제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덕분에, 오히려 힘이 나고 위로 받는 느낌이다.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기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된다.”



**강보민 씨**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을 한다. 농아인과의 소통에서 농문화에 대해 배운다. 처음에 회피하던 아이의 그림에서 어느덧 아이의 자연스러운 세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미술심리의 큰 매력을 느낀다. 봉사를 하면 면역력 수치가 올라,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



**설은주 씨**

“재능기부 기회가 주어질 때마나 내 상태를 점검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담자들을 내 가치관에 맞추려하지 않는지, '조금 더 먼저 알게 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자! 나란히 걷자!' 이런 각오를 다진다.”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1인 미디어 시대! 나도 콘텐츠 제작자!”

#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1인 크리에이터 영상제작' 강좌



단 몇 개의 TV방송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했던 시대를 지나, 블로그나 SNS를 통해 다양하고 특화된 정보들을 빠른 속도로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1인 미디어시대가 열렸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와 같은 영상 공유채널에서 누구나 자신이 만든 '1인 창작 콘텐츠'를 송출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11월 8일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스튜디오에서 '1인 크리에이터 영상제작 강좌'가 열렸다. 도서관 내 특화 시설인 영상·음향·편집 스튜디오를 활용,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1인 콘텐츠' 제작 기법을 익힌다. 특히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강좌로, 직장인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이 강좌는 '1인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손수 기획, 촬영, 편집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열리는 7회 동안, 최근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동향을 살펴보고, 콘텐츠 기획, 영상 촬영 등의 방송 제작을 실습하며, 편집 툴의 이해와 제작, 상영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김진영 담당자는 “취미를 넘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시장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배우의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이진숙 씨는(고잔동) “주부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싶다. 프로그램 구성도 만족스럽고 강사님도 정말 열정적이다. 어렵고 멀게 느껴지던 미디어를 이번 강좌를 통해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다. 전문적인 장비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산시가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강좌와 시설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의 :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031-481-3875)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③

안산시청 태권도단 김찬구 감독

“2009년 이후 해마다 종합우승, 올해도 지켜냈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자기가 잘했던 동작만 생각하라!” 태권도 겨루기 시험,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일 때, 김찬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외치는 말이다. 겨루기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인 연습들이 짧은 순간 발현되어 빛을 발하는 무대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부담감이나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몸을 경직시키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몸속에 기억된 동작들을 떠올려 생생한 감각을 찾으라는 것이다.

안산시청 태권도단 김찬구 감독에게 태권도는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희열이다. 대진표를 보고 상대편 선수를 연구하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연습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5학년부턴 태권도를 시작한 김 감독은 중·고등 시절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그 후 2007년 아프리카 리비아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독 역할을 이어갔다. 감독 첫 해 ‘아프리카 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2008년 안산시청 태권도 팀이 창단되면서, 그해 6월부터 선생팀을 이끌었다. 당시 선수는 3명이었고, 두 달 뒤 ‘대통령기 단체대항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어 2009년에는 실업연맹 종합우승을 차지한다. 이를 시작으로 해마다 종합우승을 놓치지 않았으며, 올해 ‘2017 국방부장관기 겸 2018 국가대표 예선전’과 ‘2017여성부장관기전’에서도 역시 종합우승을 지켜냈다.

김 감독은 “창단 이래 전국체전에서 처음 금메달이 나와 기쁘다.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 감독으로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부상 등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계획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태권도단은 감독의 요구만큼 훈련이 이뤄지는 편이다. 요구하는 훈련을 참아 주는 것과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를 전했다.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h1>12 Culture Calendar</h1>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p>			<p>11월의 크리스마스 Mirry X-mas 2017. 11. 29 주 7:30 PM</p>	<p>Begin Again 2017. 11. 30 (목) 오후 7시 30분</p>			<p>신개념 타악콘서트 타 show time 2017. 12. 9 (토) 오후 3시 / 7시</p>
<p>3 (마당극) 풍물마당 터주 20주년 기념공연 스톨</p> <p>일시 12. 3.(일)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스물 2017년 12월 3(화) 오후 5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Two in One 2017. 12. 8~9</p>		<p>Carmen 2017. 12. 8(일) 오후 7시 30분, 9(토) 오후 5시</p>	<p>8 (무용) 푸가 Two in One</p> <p>일시 12. 8(금) 20:00 12. 9(토)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9 (오페라) 카르멘</p> <p>일시 12. 8.(금) 19:30 12. 9.(토)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퀀텀 점프 2017 릴레이 4인전 전우연 - 고보</p> <p>일시 11. 9.(목) ~ 12. 25.(월) 장소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p>	<p>경기아트 프리즘 2017 2017. 11. 9 - 12. 10</p>		<p>13</p>	<p>기타리스트 이병우 &lt;우주기타&gt; 일시 12. 21.(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핑크퐁 상어가족 2017. 12. 16(토) 오후 5시</p>	<p>16 (오페라) 봄봄, 동승</p> <p>일시 12. 16.(토)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경기아트프리즘 2017</p> <p>일시 11. 9.(목) ~ 12. 10.(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로비</p>		<p>19</p>	<p>이병우 기타 Solo 콘서트 2017. 12. 21(목) 오후 7시 30분</p>	<p>21</p>	<p>23 핑크퐁상어가족</p> <p>일시 12. 23.(토) 11:00 12. 24.(일) 16: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25</p>	
<p>청출어람</p> <p>2017. 11. 15 - 12. 31 단원미술관 상설미술관장</p>	<p>26</p>		<p>28</p>		<p>30</p>		



## 안산시의회,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의사일정 확정

###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내년도 분예산 등을 심의할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11월 17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되며, 본회의 2회, 상임위원회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안 5건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2조1,464억7천여만 원 규모로 편성·제출함에 따라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3회 추경안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 안건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회기 동안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의회, 선진의회 사례연구 위한 국외연수

### 차별화된 연수 내실 있게 준비... '월례회의'서 느낀 점 공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선진의회 사례연구를 위해 국외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왼쪽)와 말레이시아 소방재난국(오른쪽)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선진의회 사례연구를 위해 철저한 자료 수집을 거쳐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두 팀으로 꾸려졌으며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기념하는 러시아 방문과 선진의회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문으로 진행됐다.

안산시의회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관계부서 담당자 등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방문국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먼저 10월 30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팀은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해 고려인 이주초기 및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양 의회 간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방안에 대해 환담을 실시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팀은 10월 30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셀랑고르 시의회와 소방방재청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시의회와 우리시의회간 운영을 비교·연구하고, 소방재난방재 및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싱가포르 상·하수 정화처리장을 방문하는 등 싱가포르 도시기반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6일 '월례회의'에서 전 직원과 연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국외연수와 의정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민근 의장은 "모범사례들은 우리시 의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가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의회, 환경미화원들과 ‘구슬땀 소통’

# ‘현장의 날’ 맞아 안산천변 일대 청소, 애로사항 청취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1월 7일 안산시 환경미화원들과 안산천변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 의원들이 11월 ‘현장의 날’을 맞아 안산천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의장과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손관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유화, 홍순목, 박은경, 나

정숙, 신성철 의원 등은 11월 7일 안산시 자원순환과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안산천 주변에 대한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이 구간은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주정차한 차량 밑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잦아 미화원들 사이에서도 청소가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이날 낙엽과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소 구슬땀을 흘리면서 평소 미화원들이 겪던 고충을 직접 체험했다. 작업 중간 중간 미화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도 한 의원들은 청소가 마무리된 뒤 인근 식당에서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미화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데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현장의 날’을 제안한 이민근 의장은 “날마다 아침을 열어 도시의 구석구석을 밝게 만들고 계신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함께 한 것”이라며 “시 집행부와 협의해 미화원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올해 총 다섯 차례의 ‘현장의 날’을 운영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상 구현에 힘쓰고 있다.

### PHOTO NEWS



제7대 안산시 의회 의원들이 ‘현장의 날’을 통해 시민의 원하는 민생 현안 해답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첫 방문지로 선택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첨단 산업 전진기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스마트제조혁신 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기업 지원 및 이들 기관의 사업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사진은 스마트 팩토리 랩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복지관 4층에서 열린 간담회의 한 장면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간담회 후 학교 본관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선 의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모습

## 몸, 기록, 공동체... 그리고 기억

### 김익한 교수가 돌아보는

### ‘4.16과 기억’



“4.16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4.16을 기억하려는 걸까.” 11월 8일 열린 4.16기억교실 시민교육 강의에서 명지대 기록학과 김익한 교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며 지나쳤던 ‘기억함’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4.16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한복판으로 올려놓았다.

“세월호 참사만큼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 한국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4.16을 몸에 각인된 상처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사 당시 침몰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던 국민들은, 그날의 충격을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가슴의 압박감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신적 기억은 희미해져도 몸의 기억은 여전하다. 또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의 몸은 당시 전쟁과 같았던 진도에서의 경험을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고통과 분노, 슬픔으로 각인된 기억은, 아픔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격과 슬픔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기념비’로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은 너무 가혹하다. 고통스러운 몸의 기억을 간직하며 현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했을 때, 다행인 것은 그 기억을 함께 공감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몸의 기억은 진도 행진을 시작으로 촛불집회까지 함께 이끌며, 새로운 공동체적 의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김 교수의 말이다.

기록은 기억을 소환한다. 김 교수는 참사 초기 진도에서 한 유가족이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기록이 있어야 기억을 오래하지요. 기록이 있어야 사람들과 기억을 함께 나누지요. 기록을 남겨야 여럿이 오래 갑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기록실천 작업들은 당시 정부의 움



직임과 크게 대비됐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화하며 미래를 의미 지어간다’는 한 철학자의 말과 다름이 없다. 매일 아침 아이에게 인사하며 집을 나서는 유가족의 기억은, 과거가 아닌 현재며 또 미래와도 맞닿아있다. 그 기억은 하염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삶을 의미화 한다.

진도에서 난민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체로 출발한 유가족들은 반별모임을 시작으로 4.16공방, 4.16합창단, 4.16가족극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형태의 ‘기억 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 기억공동체가 안산의 지역공동체로, 전국의 마을공동체로 그 울림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야말로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새로운 공동체적 실천의 모형이지 않을까.

◇ 문의 : 416 기억저장소(031-410-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

###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한 행진, 첫 발을 내딛다



세월호 사고를 대해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가족과 국민이 나섰다. 11월 4일(토) 오후 2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가 열렸다. 김미현 4.16가족협의회 추모분과장, 김병주 목사,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신경림 시인 등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단과 함께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4.16가족협의회는 1년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재단설립을 준비했다. 이는 ‘4.16세

월호 참사 및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가는 4.16재단에 5년 동안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법이 정한 4.16재단 사업으로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출연금 10억 원이 필요하며, 세월호 가족들이 초기출연금의 최소 절반을 책임지기로 하고 가족 당 500만 원을 출연하기로 결의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추진대회를 기점으로 100만 원 이상을 출연하는 발기인 500인을 모집하며, 내년 4월까지 1인당 1만 원의 기억기금을 내는 100만 후원인 모집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내년 2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4주기 전에 재단설립 등록을 마칠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회장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23일,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특별법 통과가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현 추모분과장도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많이 간직한 안산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 4.16재단 설립준비 사무국(070-4286-0255~025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집회·시위 문화, 양극화가 아닌 소통과 배려로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집회·시위의 목적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익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띠, 전단지, 피켓, 현수막, 팽과리, 확성기, 차량용 앰프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중 팽과리나 확성기 등은 법률적 기준을 지킨다 해도 엄청난 소음을 유발, 주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집회·시위 문화가 점점 집단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자기 논에 물대기'라는 말로 '농사짓는 농부가 자기 논에 물만 들어가면 옆 논은 곡식이 죽든지, 폐농하던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국은 집회 소음에 관련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병원, 교회 등에서 55데시벨(dB)을 초과하면 처벌하고, 독일에서는 주간 57데시벨이 상한선이며 야간 20시 이후에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주간에 5데시벨, 야간에 3데시벨을 넘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확성기를 압수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소음이 발생되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확성기의 소리를 높여 사람들의 관심을 잠시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다수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반대로 손 팻말을 들고 관공서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침묵시위나 페이스북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의사표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 전영태 경위(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수암보건소, 한방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 중장년층 여성 대상... “인생의 꽃이 되어라!”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열린 수암보건소 한방 갱년기 극복프로그램 '인생의 꽃이 되어라!'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3회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웃음치료와 같은 심리적 영역과 함께 아로마 테라피, 한방치료와 같은 부작용 없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갱년기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안산동은 다른 지역보다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한다. 중장년층의 갱년기는 흔한 증상으로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의 50%이상이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정작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한다. 여성호르몬 치료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금지하기도 하고,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수암보건소의 이유리 담당자는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갱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의학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갱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인지하고,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 혈압과 당뇨, BMI(체질량지수),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의 기초건강 검사와 음식처방, 아로마 테라피, 웃음치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우선취 한의사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 가족 건강은 누구보다도 챙기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다. 이들이 가족 건강에 핵심이다. '제2의 봄'이라는 말처럼 갱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효선(수암동, 50세) 씨는 “처음으로 다양한 것들을 해봤다. 이론만이 아닌 한방치료도 받고 원예 테라피도 경험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식물이라는 부드러운 매체를 만나, 함께 치료 받으며 이야기도 나누니 동지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했다.

◇문의 : 상록수 보건소 수암보건지소(031-481-5889)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 건강 먹거리

12월

굴

### 굴의 효능

- 감기 예방 효과 :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주어 겨울철 감기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다이어트 및 변비해소 효과 : 칼로리가 낮아 겨울철 다이어트식에 적합하고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에도 탁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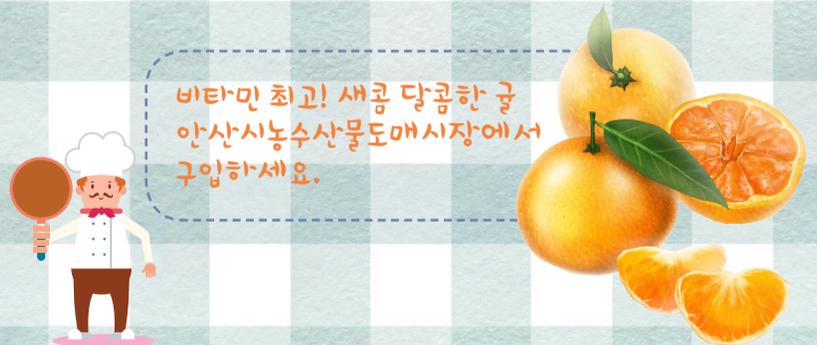
### 맛있는 굴을 고르는 방법

- 껍질에 윤기가 나고 매끄러우며 얇은 것이 달콤합니다.
- 굴 밑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굴 껍질과 알맹이 사이공간이 좁은 것일수록 알맹이가 탱글탱글 맛있습니다.

※ 도매시장의 굴 가격(2017.11.15(수)기준) : 5kg(1box) 10,000원(매일 거래가격 변동됨)

### 굴 요리 종류

- 생굴, 굴 통조림, 굴 짬, 굴 빵, 굴 차, 굴 쥬스, 굴 초콜릿 등.



비타민 최고! 새콤 달콤한 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은  
무료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메일 \_bravo@iansan.net • 전화 \_ 031-481-2042



클래식

<제5회 안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 일시: 2017. 11. 25.(토) 15:00
- ◇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 관람료: 무료 ※ 공연 당일 선착순배부(14:00~)
- ◇ 문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31-481-4000)

안산시여성합창단

제30회 정기연주회 "Begin Again"



- ◇ 일시: 2017. 11. 30.(목) 오후 7시 30분
- ◇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 주최: 안산시
- ◇ 출연진: 안산시여성합창단, 바리톤김주택(팬텀싱어2), 이세준(유리상자) 등

- ◇ 관람료: 무료
-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068)

2017 안산 건축도시 미래전략 포럼



- ◇ 일시: 2017. 11. 29.(수) 14:00~18:00
- ◇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3층 컨퍼런스홀
- ◇ 내용: 안산건축도시 미래전략 포럼 및 토론
- ◇ 참석: 건축-도시환경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연구원 및 산업계 종사자 등

- ◇ 참석신청: 이메일 사전등록 또는 행사 당일 현장등록
- ◇ 참석비용: 무료
- ◇ 문의: 안산건축도시연구센터(RCC) (031-400-5015/sohee0405@hanyang.ac.kr)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설문조사

- ◇ 설문기간: 2017. 11. 17. ~ 12. 7. (20일간)
- ◇ 설문대상: 구독자 및 안산시민
- ◇ 설문내용: 시정소식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기타 건의사항 등
- ◇ 설문혜택: 1만 여원 상당의 경품 제공
- ◇ 설문조사: 안산시청(<http://www.iansan.net>) 또는 e-브라보안산([www.bravoansan.net](http://www.bravoansan.net))에서 참여가능
- ◇ 문의: 안산시 공보관(031-481-2042)

채용박람회

목요일에 희망잡(job) 고(go)



- ◇ 개최일시: 2017. 12. 7. (목) 14:00 ~ 16:00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
- ◇ 주최/주관: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031-481-2882)

2017 흡연자 금연성공 후기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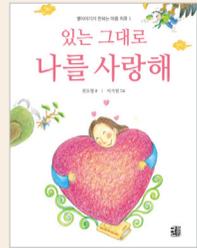


- ◇ 기간: 2017. 11. 13. ~ 12. 4. (22일간)
- ◇ 공모부분: 금연성공 내용이 담긴 후기(A4용지 2~3매 내외, 굴림체, 글씨크기 13)
- ◇ 응모자격: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 금연 성공자로서(작품 제출 마감일까지 안산시로 주소 이전 자 포함)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중인 자
- 금연성공 판정자: 작품 제출시점 6개월(168일) 경과자로 금연클리닉에서 소변 니코틴 성공판정 받은 자
- ◇ 문의/접수: 단원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031-481-3468, 3476~8)

책 읽는 안산 / 11월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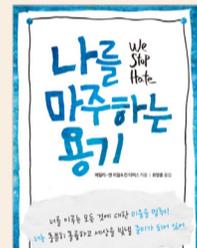
이달의 주제 『자연과 생태 이야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저자 권도영 / 출판사 큰북소리

오랫동안 이야기를 공부해온 연구자이자 치유 전문가인 저자가 자존감, 학업, 교우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14편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에 실린 14편의 옛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주먹이, 신바닥이, 오늘이, 거북이와 남생이- 등등은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지만 모두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헤쳐 나간다.



나를 마주하는 용기

저자 에밀리-앤 리걸, 진 디머스 / 출판사 나무생각

이 책에는 저자를 비롯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슬기롭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유튜브에 WeStopHate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 제작 등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멘토링을 해 왔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관계형성법을 소개한다.



나에게 고맙다

저자 전승환 / 출판사 허밍버드

5년 동안 한결같이 좋은 글귀로 위안을 주던 '책 읽어주는 남자'가 이번에는 책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사려 깊게 읽고 다독인다. 《책 읽어주는 남자》의 토닥토닥 에세이 『나에게 고맙다』는 어쩌면 세상 가장 흔한 말이지만, 정작 내게는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다. 거창한 말도, 특별한 고백도 아니다. 그저 "고마워",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처럼 내 주위 사람들에게는 솔하게 해 주었던 위로와 감사의 표현이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지구를 살리는 스타일 '온 맵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온(溫) 옷을 차려 입은 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 온 맵시는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을 통해 체온은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는 올 겨울, 안산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보세요!

12 한파 예방 캠페인

카드포인트로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받으세요

연간 소멸되는 포인트 1,300억원

포인트 기부방법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카드포인트로 기부 가능
- [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 신한카드 · 롯데카드 · 농협카드에서 가능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정별 정치후원금 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안산시연구·상록구연구관리위원회의

소중한 정치후원

소금

정치후원금센터

안산시연구·상록구연구관리위원회의